

“우리도 함께 뛰다”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3

“전남체육 도약의 계기로 삼겠다”

전남도체육회

“3·1절 전국 마라톤대회를 기점으로 앞으로 전남체육을 한단계 도약시키겠습니다.”

전남도체육회는 지난달 24일 남양신도시에 전남체육인의 요람이자 보금자리인 전남도체육회관을 신축 이전함에 따라 전남체육 진흥에 발 벗고 나섰다.

도체육회는 매년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에 ‘단골손님’으로 참가해왔지만 이번 대회만큼은 의미가 남다르다. 도체육회관 이전에 따른 사무실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됐다. 신규 직원도 합류했다. 따라서 15명 전 직원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첫 무대인 셈이다. 전승현 사무처

장 등 15명의 임직원은 5km 코스를 완주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그동안 등산과 골프로 체력을 다져온 전승현 사무처장은 시민과 함께하며 달려온 전남체육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최근 취임 1주년을 맞은 전 사무처장은 이번 마라톤대회 참가를 계기로 전남도체육회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38년간의 행정가에서 체육인으로 변신을 꾀했다.

전 사무처장은 지난 1년여동안 ▲재력과 역량을 갖춘 가맹 경기단체(체조·레슬링·사이클·럭비)회장 영입 ▲해남군청 펜싱부 등 행정기관 직장단일팀 창단 ▲시·도체육회 교류 활성화를 통한 대외 위상 제고(경기도 및 제주특별 자치도체육회) ▲전국 규모대

회 개최 및 동·하계 전지훈련팀 다수 유치를 통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전남체육인의 숙원사업인 전남도체육회관 신축, 이전으로 제2의 도약 마련 ▲개회식 생중계 생사 등 전남도 체육대회 성공 개최 등 6가지의 굵직한 사업을 성사시켰다.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전남체육의 내공을 다져냈다고 판단하고 올해에는 ‘대의 위상 제고’를 화두로 꺼내들었다. 큰 골격은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대회의 성적상승이다.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종합 11위로 전년 대비 한단계 하락한데다 올해는 반드시 이를 만회하겠다는 각오다. 전남도체육회는 그 시작점을 3·1절 마라톤대회로 잡고 있다.

육상 100m 국가대표 경력의 김상민 사무처장은 목표 해안도로 도보 및 조깅을 통해



제48회 광주일보 3·1절 마라톤대회 출전을 앞둔 전남도체육회 전승현 사무처장(가운데)과 직원들이 올해 전남체육발전 견인과 완주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체력을 다져왔다. 박경재 총무·운영부장 역시 호남대 체육학과 출신으로 평소 등산과 수영으로 체력을 단련해왔다.

이행구·공갑석·정회진·정현숙 팀장은 “절대 낙오는 없다”며 비장한 각오를 드러내고 있다. 이행구 팀장은 축구와 골프로, 공갑석 팀장은 등산으로, 정회진 팀장은 골프로, 정현숙 팀장은 에어로빅으로 저마다 체력을 길러왔다는 후문이다.

이승혜·안요섭·조신영·이주호·배상호·

남기수·이정호씨도 완주를 자신한다.

안요섭·조신영은 헬스로, 이승혜는 에어로빅으로 각각 체력을 남몰래 키워왔다. 또한 남기수씨는 축구로, 전지 야구선수 출신인 이정호씨는 야구로 주말을 보냈다.

입사 2년째인 배상호씨는 주말마다 불링장과 헬스장에서 살다시피하며 체력을 관리했다. 지난해 8월 입사한 ‘신참내기’ 이주호씨는 초등시절 야구선수 출신에다 195cm의 장신을 자랑,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받

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임신 7개월째인 과나영씨는 비록 대회에는 나서지 못하지만 동료들의 끝인 질주를 응원한다.

전승현 사무처장은 “올해 전남도 체육의 경기력 상승과 대외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마라톤 대회를 통해 3·1운동 정신을 함께 느끼고, 체육인으로서의 매너와 교양을 보여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크로아티아가 세다며?”

“그래도 우리가 이긴다!”

크로아티아와의 평가전을 앞둔 축구대표팀의 박주영(오른쪽)과 이청용이 지난 4일 오후(현지시간) 영국 말로우 비스햄 애비 내셔널 스포츠센터에서 가진 훈련을 마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협뉴스

‘손흥민 활용’ 최상의 공격조합 찾아라

최강희호, 오늘밤 11시 유럽의 강호 크로아티아와 평가전

이동국·박주영 투톱 ... 월드컵 최종예선 카타르전 시험무대

유럽축구의 ‘강호’ 크로아티아(FIFA랭킹 10위)와의 평가전을 앞둔 국가대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공격 조합 구축’이다.

최강희 감독은 이번 평가전에 출전할 선수를 뽑으면서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까지 끌고 가겠다”면서 “가장 좋은 공격조합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동국(전북), 박주영(셀타 비고)이 여전히 핵심에 자리 잡고 있지만

최근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는 손흥민(함부르크)을 최 감독이 어떻게 활용할지도 관심을 끈다.

박주영과 손흥민이 각각 스페인과 독일에서 리그 경기를 소화하고 나서 대표팀에 합류, 선수들의 호흡을 이리저리 시험해 볼 시간이 많지 않다.

4일(현지시간) 영국 말로우의 비스햄 애비 스포츠센터에서 이어진 훈련 중 열린 연습경기에서는 이동국과 박주영이 투톱으로 나섰다.

함께 출격했을 때 ‘상생’ 여부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됨에도 최 감독이 가장 믿을 수 있는 옵션이다.

이동국은 “박주영과 관계가 나쁜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면서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에게는 이동국·박주영을 왼쪽에서 받치거나 공격의 선봉에 서는 역할이 주어졌다. 손흥민이 최전방에 설 때는 지동원(아우스쿠부르크)이 호흡을 맞췄다.

손흥민은 최근 소속팀에서 아르티움스 루드네브스와 투톱으로 주로 출전하면서 득점력을 뽐내고 있어 대표팀에서도 최전방 공격수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잠재력과 능력은 충분하지만 대표팀에 오면 부담감을 떨쳐야 한다”는 최감독 감독의 우려도 손흥민이 넘어야 할 산이다.

손흥민은 “팀에서 포워드, 양쪽 날개, 처진 공격수를 다 해왔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는 어디든 편하게 하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카타르와의 월드컵 최종예선(3월 26일)까지도 시간이 많지 않아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실용기회’ 인만큼 크로아티아전에 나설 공격진에 대한 최감독 감독의 고민은 막관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연협뉴스

광주 FC 안동혁 3경기 연속골

중국 전지훈련 ... 연습경기서 4승 1패 ‘순항’

중국 광저우=김여울 기자

광주FC는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5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점검하고 올 시즌에 대한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전적은 4승 1패.

4일 AFC 출전팀인 중국 슈퍼리그(1부리그) 4위 구이저우 란허 1군 선수들과의 경기에서도 안동혁의 결승골이 나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2011년 1부리그 4위에 올랐던 리아오잉 FC와의 대결에서도 3골을 몰아넣으며 3-0 승리를 거두는 등 ‘여범규호’의 향배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무르익는 패스 축구

광주 전지훈련의 화두는 ‘패스 축구’다. 빠른 패스를 통해 차근차근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축구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준비하고 연습했던 부분은 경기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경기 도중 선수들이 가장 많이 외치는 단어가 ‘자러’다. 약속된 자리를 지키면서 한발 빠른 패스로 상대를 움직이고 빈틈을 파고 들어가고 있다. 아직 100% 몸에 익은 것은 아니지만 선수들은 새로운 도전이 즐겁다.

미드필더 김은선은 “선수들이 빠른 패스를 하면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다. 하나하나 플레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즐겁다”고 밝혔다.

◇새 얼굴, 파트너 찾기

여 감독은 캠프를 시작하면서 선수들에게 ‘기회’를 약속했다. 지난 2년의 시간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열정을 보겠다는 의미다. 조용히 기회를 노리고 있던 선수들은 연습경기에서 날개를 펴고 있다. 공격자원의 대거 이탈속에 공격수 박현이 새로운 공격자원으로 거듭났다는 소식을 듣고 있고, 미드필더 임신영



광주 FC 후원 협약 광주 FC는 5일 광주시청 접견실에서 강운태 시장과 박해구 사무처장, 문경만(주)알래스카 광주월드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푸드 파 레스토랑 알래스카와 공동 프로모션을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광주 FC 제공>

과 안동혁도 공격에 초점을 맞춰 각각의 아가자기하고 파워풀한 매력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시즌 마지막 공격 본능을 과시했던 안동혁은 3경기 연속 골을 터트리며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다.

수비진의 퍼즐 맞추기도 계속되고 있다. 여 감독은 돌아온 주장 박병주를 중앙수비수로 세우고 김수범·임하람·유종현·이용 등 다양한 조합을 구성해 보면서 베스트 11을 그리고 있다.

◇강팀과의 대결, 부상 주의보

여 감독은 4일 강팀과의 대결을 앞두고 “드디어 임자를 만나게 됐다”며 기대감을 보였다. 강팀과의 대결을 통해 선수들의 진짜 전력을 평가해 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AFC에 대비해 광주와의 경기를 요청했던 구이저우 란허는 오후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을 출동시켰다. 외국인 선수도 4명을 투입해 파워있는 축구를 보여줬다.

경기가 끝난 후 여 감독은 “만들어 가는 과정이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파워에서 앞서

는 팀을 상대로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승리를 거뒀다”며 “7일 다시 경기를 하기로 했는데 기대가 된다. 상대도 자존심이 상한만큼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여 감독은 강팀과의 대결을 통해 올 시즌 구상을 마무리하고 선수들의 자신감을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에 따라 광주선수들은 자연스럽게 전력 업그레이드를 이뤄가고 있다. 물 흐르듯 흘러가는 광주 캠프의 유일한 고민은 ‘부상’.

중국 축구는 거친 플레이로 소문이 났다. 3일 리아오잉 FC와의 경기내내 신경전이 벌어졌고 급기야 상대 선수와 심판과의 몸싸움으로까지 번지면서 90분을 채우지 못하고 경기가 끝났다. 4일에는 이현샘이 상대 선수의 발에 목부위를 맞아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여 감독이 캠프에서 꿈꾸는 1차 목표는 ‘마지막 날 부상자 없이 선수단 전원 즐겁게 운동하고 집을 꾸리는 것’이다. 촉촉한 봄비가 내린 5일 오전 짧은 휴식을 취한 광주 FC의 2013 시즌 도전은 계속된다.

/wool@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Daewon Travel featuring Haksan Island and Hado/Haksan Island special events. Includes details on departure dates, prices, and inclusions.